우리나라 고대사 撲園史話 ⑩

규 원 사 화

▣ 一沙 權 正 孝 옮김

(지난호에 이어)

檀君紀 단군기

당시를 지금과 비교하면 오히려 옛날에 5백년이나 가까운데 옛 기록이 흩어져 없어지고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없다고 하였으니, 일찍이 이와 같은 일이 이다지도 심할 줄이야! 더욱이 《조대기(朝代記)》의 이름이 《고조선비기(古朝鮮秘記)》. 《지공기(誌公記)》. 《삼성밀기(三聖密記)》 등의 책과 함께 세조(世祖)가 내린 구서(求書)의 유시에도 보이는데 유독 김씨의 세대에 이 책들이 없었더란 말인가.

盖三國鼎立, 互事吞, 新羅終致聯唐兵而覆麗濟, 厥後渤海雖興, 只與新羅南北相對, 不惟秦.越而已. 是以, 弓裔襲據漢北之地, 則恨平壤之茂草, 聲言爲高句麗報, 而浿西諸鎭, 望風歸服, 立國建元, 威壓列州; 甄萱叛據完山, 則憤百濟之衰亡, 以雪義慈宿憤爲言, 而西南州縣, 所至響應, 建都設職, 喜得人心. 高麗旣承羅後, 而疆土不出鴨水以外一步之地, 自與北方無涉. 且遼.金之勢, 威壓境上, 區區鴨水以南數千里地, 更非雄邦巨國之比, 則民氣之衰微, 自有甚於古者[矣. 是以, 金氏撰史之時, 已無過問, 鴨北之事者.] 平壤之地, 荒廢頗久, 舊基雖存而荊棘滋茂, 蕃人(遊)[游]獵, 侵掠邊邑者, 麗.太祖初年所記也. 然則, 高句麗亡後三百年, 而平壤不免荊棘, 渤海人之遊獵其間者, 則輒稱之以蕃人侵掠邊邑, 則只恨其大害; 然則, 忽汗敗而大氏之來奔高麗者, 亦家敗而睦族之類而已.

대저 삼국이 정립하고 있으며 서로 집어삼키고 물어뜯고 하다가 신라가 마침내 당나라 병사와 연합하게 되자 고구려와 백제를 넘어뜨렸다. 그후 발해가 비록 일어나기는 하였지만 단지 신라와 더불어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었을 뿐 서로 마음에 두지 않았으니 곧 소원해질 따름이었다. 그러다가 궁예(弓裔)가 한강 이북의 땅을 점령하여 차지하고는 잡초만 무성해진 평양 땅을 한탄하며 고구려를 위하여 원수를 갚겠다고 천명하니, 패서(浿西)의 모든 고을이 그 기세에 힘입고 모여들어 복종하기에 나라를 세우고 연호를 정함에 그 위세가 모든 고을을 제압하였다.

견훤(甄萱)은 완산에서 반란을 일으켜 점거하고 백제의 쇠망을 분하게 여겨 의자왕의 묵은 원한을 갚고자 한다고 천명하니, 서남쪽의 고을 가운데 그 명성이 이르는 곳마다 모두 향응하기에 도읍을 세우고 직책을 설치하여 기꺼이 인심을 얻게 되었다. 고려가 신라를 계승하였다고는 하지만 강토는 이미 압록강에서 밖으로 단 한 발자국도 나서지 못하는 땅이 되었으며, 북방과 더불어 스스로 관계를 가지지도 않았었다. 또한 요나라와 금나라의 기세가 국경을 위세로 억누르니, 구구하게 압록강 이남의 수천 리 땅으로 다시금 웅혼하고도 거대했던 나라와 비교될 수가 없었기에 백성의 기세가 저절로 쇠미해짐이 옛날보다 심하게 되었다.

그러한 까닭에 김씨가 역사를 서술할 때는 이미 압록강 이북의 일에 대해 묻는 자가 없었다. 항차 평양 땅은 황폐해진지가 자못 오래되었으니, 예전의 기초는 비록 남아 있다고 하지만 가시덤불이 무성히 자라고 오랑캐들이 수렵하여 노닐며 주변의 고을을 약탈하였다는 것이 고려 태조 초년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한 즉 고구려가 망한 뒤 3백년이 지난 후 평양은 가시덤불을 면하지 못하였으니, 발해인들이 그 곳을 수렵하며 노닐었던 것을 그저 '오랑캐들이 침입하여 주변의 고을을 약탈했다'라고 한 것은 단지 같은 민족을 욕하는 커다란 해악을 두려워해서이며, 그러기에 흘한에서 패한 대씨가 고려로 투항하여 온 것과 같이 마치 집안이 망하면 오히려 가족끼리는 화목하여 지는 것과도 같은 것일 따름이다.

及夫 淸之造亂, 奉命剿討者, 又是金富軾也. 金氏旣無信文, 又惡妙淸之妖, 西京之破, 幷不深採其說, 下筆寫過, 只留本神人王儉之宅數句, 亦何足深責; 而渤海史, 幷不過問, 金氏於此, 終不免其咎矣. 盖金氏旣醉於漢籍, 又乏雄圖, 則雖有甚歎於吾邦之事, 却茫然不知其始末之處, 而亦無能而已矣. 我邦經史之禍, 其來久矣. 今浩歎無益, 亦復奈何.

무릇 묘청이 난을 일으키자 왕명을 받들어 그를 토벌하여 전멸시킨 사람 또한 김부식이다. 김씨에게는 원래 믿을 만한 글이 없는데, 또한 묘청의 요사스러움과 서경의 파탄을 미워한다 하면서도 더군다나 이 모두에 대해 깊이 있게 그 내용을 캐지 않고 글을 써내려가며 단지 [본래 신인왕검이 자리잡은 곳이다……]는 등의 몇 구절만을 남겨 놓았으니 어찌 그를 질책하는 것만으로 족할 것이며, 더욱이 발해의 역사는 언급도 하지 않았으니,

김씨는 이로서 언제까지나 그 허물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김씨는 본디 한나라의 서적에 빠져 있고 또한 웅장한 계책 같은 것도 결핍된 자인지라 비록 우리나라의 일에 대해 근심하여 한숨을 쉰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엉뚱하게도 그 시작과 끝도 분간하지 못하는 것이니, 이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일 따름이다. 우리나라의 경전과 역사 서적이 입은 화는 이미 오래이니, 지금에 와서 아무리 탄식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또한 어찌할 수 있을 것인가.

按《遼史·地理志》, 有[顯州.奉先軍, 上,節度. 本渤海.顯德府地. 天顯三年, 遷東丹民居之, 升爲南京城. 天顯十三年, 改南京爲東京府曰遼陽……]等句. 今遼陽在蘇密以南六百餘里, 與淸平之說, 甚相逕庭. 且遼陽旣爲中京, 則西京當擬於遼西.臨潢等地, 以渤海舊疆考之, 決無是理. 淸平諸說, 已有所據, 而《遼史》則乃元.至正中, 丞相脫脫等所撰也; 經金.宋交爭以後數三百年, 文獻自多不備, 傳說亦多失正鵠, 而渤海亡後, 其世族舊臣, 隨處擧兵, 殆將百年不息, 遼人多遷其民, 與漢民雜處, 遼西之地, 以至城邑, 冒稱渤海, 本名者, 不下數十. 元人修史者, 只憑古傳名字, 輒自斷之, 不亦乎. 壬儉城者, 卽古語京城之意也. 平壤之意, 雖未詳, 亦必都城之義, 如新羅之徐羅伐 百濟之慰禮也. 《括地志》云, 高麗治平壤城, 本王險城. 《史記》. 《漢書》[通及](及《通典》, 皆有王險城字, 此又儉字之誤也. 此可續述焉.

《요사.지리지(遼史.地理志)》에 의하면 [현주(顯州)의 봉선군(奉先軍)은 상절도(上節度)로서 본래 발해의 현덕부(顯德府) 땅이다. 천현(天顯) 3년에 동란(東丹)의 백성을 옮겨 살게하고 승격시켜 남경성(南京城)으로 삼았다. 천현 13년에 남경을 고쳐 동경으로 삼고 관청을 두어 요양(遼陽)이라 하였다]는 등의 구절이 있는데, 지금의 요양은 소밀(蘇密)의 남쪽 600여 리에 있으니 청평의 말과는 서로 차이가 매우 심하다. 또한 요양이 이미 중경이 되었으니 곧 남경은 당연히 요서(遼西)나 임황(臨潢) 등의 땅에 비견되어야 하므로 발해의 옛 강토로써 이를 고찰하여 보면 절대로 그럴리가 없다. 더욱이 청평의 모든 말은 이미 그 근거하는 바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지만,

《요사(遼史)》는 곧 원나라 중정(中正) 연간에 승상 탈탈(脫脫) 등이 찬술한 것으로서 금나라와 송나라가 서로 다툰 이후 거의 3백년이 지난 뒤이기에 문헌이 많이 소실되었고 내려오는 얘기 또한 자못 그 올바름을 잃어 버렸으며, 발해가 망한 후 그 명문세가나 옛 신하들이 도처에서 병사를 일으킴이 거의 백년 동안 쉴 틈이 없음에 요나라 사람들이 그 백성들을 많이 옮겨 한나라 백성과 섞어 거처하게 하였기에 요서의 땅에는 성읍에 이르기까지 발해의 지명을 모방하여 부르게 되어서 본래의 지명이 남은 곳은 수십 곳을 넘지 못하였는데, 원나라 사람이 엮은 역사는 단지 예로부터 전해 오는 이름의 글자에만 의지해서 함부로 단정지어 버린 것이므로 이 또한 소흘했던 것이 아니었겠는가.

(다음호에 계속)

■ 모범 종친회 순례 ② 영덕종친회편

충절의 고장 영덕·영해를 찾아서

한반도의 명산 태백준령이 힘차게 뻗어 태양이 용솟음 하는 동해의 끝자락에 머물며 남쪽으로 둥운산이요, 북으로는 칠보산이 자리하니 우람한 영산들이 사방으로 펼쳐 민족정기가 이곳에 집결되어 고려말 대학자 이색선생 등 예부터 충신열사와 현인군자가 많이 배출된 천혜의 경관으로서 수많은 성씨들이 터전을 잡고 생활하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권문의 세거는 560여년의 역사 속에 800여 호에 3,000여 족친이 삶의 터전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

△영덕종친회관

특히 영해지역에 집성촌을 이루고 산거한 분포는 입향조 오봉(五峯)공의 후손으로 공의 휘는 책(策)이요, 자는 경지, 호는 오봉이다. 시조(始祖) 태사공의 17세손이요 파조 부정공(휘 통의) 후 8세손으로서 중조 찬성공(휘 백종)이 분계하여 장자는 조선조 문종 국구 화산부원군 경혜공(휘 전)이요 차자(次子) 진보현감(휘 촌)이 공의 조부되시고 황고는 부제학(휘 자홍)이신데 생(生) 삼자(三子) 중 공이 끝분이시며 공의 백령(휘 저)와 휘 서는 공의 교리였는데 단종사화에 종부 충장공(휘 자신)과 함께 백중씨(伯仲氏) 모두 극형을 당하고 공은 년(年) 미만으로 사사(賜死)를 면하여 겨우 13세 편발소년으로 영해에 편배하니 천애고종이 되어 방황하던 중 천우신조로 유덕 군자 단양 신씨의 구혈에 힘입어 성장한 바 그의 여서(女婿)가 되어 인양촌에 기지를 택하니 그 후손이 500여 가구가 번성하여 오늘에 이르고, 영덕 해안 대부리에 복야공파조(휘 수홍)의 15세손 휘 백수(白秀)의 후손이 400여년 전에 입향하여 현재 30여 호가 집성촌을 이루고 군내 각 지역마다 고루 분포하여 권문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태백준령의 동남쪽에 위치한 충절의 고장 영해에서 1956년 4월 선조의 충효사상을 후세에 전하고 집성촌의 면모를 뿌리내리고자 권병철씨를 초대 회장으로 영해대동화수회가 발족되었으며 제4대 회장까지 역임하면서 종친회 기반 구축에 전력했으며, 5대(병목), 6대(병을), 7-8대(상문), 9대(종대(옥금), 10대(병팔)에 이어 11-12대(종대(송천) 회장 시 1990면 9월 600여명이 시조묘소와 운곡서원을 참배하였고 종친회관 건립에 대한 발의를 하여 13대 헌중 회장 재임 시(1994년) 회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3여년간 경향 각지 출향 족친과 향내 거주 족친에게 1억 3천여만원을 모금하여 명사20리 고래불 남쪽 우뚝솟은 위상이 넘치는 상대산 아래 1997년 3월 착공하여 동년 8월에 부지 면적 260여평에 건평 60여평을 신축하여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거행하였다.

권병윤 영덕종친회장

14대(정한), 15대(종만)회장 재임 중 97년에 새롭게 발족된 영덕청년회가 4년 연속 오문 자녀의 후학계도의 일환으로 보학강좌를 실시하여 권도정신의 맥을 이었으며 2000년에는 제12회 전국청년체육대회(대회장 권병윤)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16대 회장에 권종문씨를 선출하여 본회와 영덕종친회를 통합하여 영덕군종친회로 개칭하고 17대(수운)회장이 회관 조경사업 등, 본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였고 18대(오철), 19대에 초대.2대 청년회장, 종친회 사무국장, 부회장을 거쳐 2011년 6월18일에 취임한 권병윤회장은 2012년 4월18일 임원 30여명과 함께 능동 시조묘소, 낭중공단소를 참배하였다. 올해의 추진계획으로서는 △정기총회개최 △임원회의(수시) △원로임원 초청 경로행사 겸 간담회(년 2회) △하계 보학강좌 △선조유적지 탐방(년 1회) △우수회원 표창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영덕종친회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권병윤 △부회장:권성덕, 효준, 영승, 오화, 오섭, 수복 △여성부회장:권옥태, 숙금 △감사:권영해, 위달 △임원:권창기 외 40명 △사무국장:권신기 연락처:(054)732-0458(회장)

〈권병윤 회장〉

임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합니다

▣ 총재단회비

△권혁승(상임부총재)	20만원

▣ 종무위원회비

△권희철(대전)	20만원
△권우식(인천)	20만원
△권호준(대전)	20만원
△권경호(대구)	20만원
△권오익(인천)	20만원
△권성일(대구)	20만원
△권박원(대전)	20만원
△권재목(부산)	20만원

소 계 160만원

▣ 대의원회비

△권호량(예천)	10만원
△권호규(안동)	10만원
△권부득(예천)	10만원
△권오수(안동)	10만원
△권용기(대전)	10만원
△권오익(안동)	10만원

소 계 60만원

합계 240만원

못난 지휘자와 충성스런 부하

권 중 달

(중앙대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위진 남북조 시대의 남쪽에 있는 동진(東晉)의 이야기를 해 보자. 사마씨(司馬氏)가 세운 진(晉)나라는 오호(五胡)의 남하로 남쪽으로 쫓겨 내려 와 동진(東晉)이 되었다. 그런데 나약한 황제 안제 사마덕종은 그저 궁궐만 지키고 있었고, 군사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횡행하였다.

황실에서 권력을 농단하는 사람은 안제 사마덕종의 삼촌인 회계왕 사마도자(司馬道子)였는데, 술을 워낙 좋아 할 뿐만 아니라 왕국보(王國寶) 같은 총신을 임용하여 전횡하였다. 그의 정치 아래서는 어떤 이유로 권력을 빼앗길지 모른다고 생각한 은중감(殷仲堪)은 환현(桓玄과 양전기(楊佺期)와 맹약을 맺었다. 그런데 일단 맹약을 맺어 놓고 보니 셋이서 사마도자를 제거한다고 하여도 그가 제거된 다음에 환현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양전기와 혼인관계를 맺어서 자기를 도와줄 세력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환현의 입장에서 본다면 은중감이 배반한 셈인 것이다.

이를 지켜 본 환현이 이러다가는 은중감에게 멸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술꾼 사마도자 대신 실제로 권력을 잡고 있는 그의 아들인 사마원현(司馬元顯)에게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을 좀 더 넓혀달라고 부탁하였다. 힘이 있어야 은중감 등에게 맞설 수 있다고 생각한 때문이다.

한편 권력자 사마원현의 입장에서는 군사력을 가진 대신들이 항상 위험스럽다고 생각하여 이들을 반목하게 하여 그 군사력을 약화시키고자 하였는데, 환현의 이 부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이를 실행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형주(荊州)에 있는 네 군(郡)의 군사를 지휘감독하게 하여 형주자사인 은중감과 싸우게 만들었다. 환현이 자기가 맡은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은중감이 다스리는 형주 지역으로 군사를 이끌고 간다면 결과적으로 두 군사력을 가진 대신이 싸우게 되는 것이다. 사마원현의 음흉한 정치적 조치에 두 사람이 빠진 것이다.

어쨌거나 은중감은 환현이 그가 다스리는 형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하였다. 이때에 은중감과 혼인관계를 맺은 양전기가 은중감에게 힘을 합하여 환현을 먼저 치자고 하였다. 그랬더니 은중감은 다시 환현을 치고 난 다음에 양전기를 감당할 수 없을까 또 걱정하여 양전기의 제의를 미적거리면서 환현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본 은중감의 밑에서 참군(參軍)노릇을 하고 있는 나기생(羅企生)은 결국 자기가 모시는 은중감이 실패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판단하였다. 이렇게 결단력 없는 사람을 모시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자기가 모시는 은중감의 실패와 함께 자기도 죽을 것을 예상하였다. 그렇다고 의리로 보아 그를 떠날 수도 없었다.

결국 환현과의 싸움에서 진 은중감은 달아나게 되었다. 그의 우유부단한 그의 조치 때문에 달아나는 그를 따라 가는 것은 그와 함께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한 그의 밑에 있던 관원들은 한사람도 그를 따르지 않았다. 다만 나기생만이 그를 좇았다.

가는 도중에 나기생은 그의 노모가 있는 집 앞을 지나갔다. 이때 그의 동생 나준생도 이 사정을 아는지라 노모 핑계를 대면서 노모를 버리고 어디로 가느냐고 하면서 형 나기생을 은중감을 좇지 못하도록 붙잡았다. 결국 은중감은 나기준이 그 형 나기생을 놓아 주지 않을 것을 알고 말에 채찍질을 하여 떠났다.

동생 때문에 남게 된 나기생은 대신 은중감의 집안일을 관리하는데, 환현이 형주에 입성하였다. 환현은 나기생이 평소에 후덕한 사람이라 죽이면 비난을 받을까하여 자기에게 사죄만 하면 살려 주겠다고 통보하였다. 그러나 '내가 모시는 사람이 실패한 것을 구하지 못했는데, 무엇을 사죄하란 말인가?' 하고 결국 죽었다. 은중감은 우유부단하여 실패 했지만 그 부하 나기생만은 그에 대한 충성심을 끝까지 지킨 셈이었다.

수필

효도(孝道)

權 五 福

(본원 편집위원)

인간은 그 많은 동물 가운데서 그들이 하지 못하는 차원 높은 지성과 이성

이 있음으로 사색하고 창조하는 혼(魂)을 가졌기에 고등동물로서의 위치에서 우위를 갖고 만물을 지배하는 영장인 것이다. 제아무리 큰 코끼리도 제아무리 날쌘 맹호도 창공을 누비는 독수리도 모두 인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금수와 달리 사회의 규범이 있는 것이며 질서가 있다.

자기를 낳아 주시고 기르신 어버이에 대한 보은의 정신 효(孝)가 있으니 이것이 동물과 또 다른 점이라 할 것이다. 효(孝)의 본질은 부모와 자녀사이에 주고받는 사랑이다. 이것을 옛 성현들께서는 부자자효(父慈子孝)라는 말로 표현했다. 이는 부모님의 한없는 사랑에 대하여 자녀들이 이에 보답하는 뜻에서 정성을 다하는 것을 효도(孝道)라고 했다.

그런데 부모들은 지극히 자연스럽게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비해 자식들은 그 부모의 은혜가 태산같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답의 효도를 제대로 한다는 것이 그리 용이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인간다운 인간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충의(忠義)와 부모님을 공경하고 보은하는 효도를 몸으로 실행하는 인격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배우고, 가르치는 것인데…

효(孝)는 만사의 근원이요 인류 최상의 기본이며 화평의 기준임을 몰라서는 안된다. 즉 어버이와 자식 사이에 효가 바로 잡히면 그 집안은 질서가 유지될 것이요, 동시에 이웃과 친척간에 화목과 안정을 이룩하게 되며 효의 사상이 승화되어 나아가서는 나라를 사랑하는 충의사상(忠義思想)으로 모습을 바꾸게 마련이다.

즉 충(忠)은 국가를 받들고 나라와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며 이는 효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언제나 충과 효는 일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부모에 대한 효를 올바르게 한다면 마음이 순박해지고 이러한 효의 경의사상이 지역사회에 심어지면 이는 신으로 그 뜻이 더욱 깊어진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믿음과 신뢰를 부여하는 것이며 화목의 바탕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요소라 할 것이다.

효는 부부간에 화목을 종용한다. 부부간에 금술이 좋아지는 계기를 주며 화목단란한 가정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효를 자녀들에게 교육시킬 때에는 자신이 먼저 행동으로 실천하여야만 자녀들이 이를 보고 스스로 인격도야와 사랑의 자비와 순애의 기쁨, 기풍 그리고 인자한 성격이 형성되어 전통을 이루게 된다. 효는 그 깊은 뜻을 더하여 스승에의 존경을 불러일으킨다.

스승으로 존경하고 학문을 사랑할 때 제자와의 사이에 사도(師道)가 이루어진다. 스승을 받들고 공경하면 사람됨이 고매하고 시문(詩文) 문예에 통달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지닌 인격이 형성되니 효는 모든 것의 근원이라 아니할 수 없다.

산업사회 서구풍의 도래로 인하여 사회의 구조적 차이를 전통적인 효의 개념을 전근대적인 것으로 일축하는 어리석음은 민족의 비극이며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핵가족화 된 현실에서 그래도 정신적 지주로서 효행은 그대로 존속되어야 함은 두말을 필요치 아니한다.

전진의 메아리 속에 조국은 선진대국으로 발돋움하여 세계 각국의 지도국이 되어 윤리의 존엄으로 세계만방의 인류를 이끌어 나아가야 한다.

사회는 무수한 감정적 결합으로 통합을 유지하는 것이고 가족적 인연의 부자(父子)와 모자(母子)의 관계는 영원한 것으로써 부모의 사랑 또한 영원하며 자식 또한 효(孝)로써 극진히 정성을 다하여 부모를 모셔야 인간의 도리일 것이며 만물의 영장일 것이다.

더욱이 우리 안동권씨들은 1천여 년의 종통(宗通)을 이어 받은 명문의 후손으로서 긍지와 자부, 자존심을 갖고 먼저 실천으로 모범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바로잡습니다

본지(안동권시종보 2013년 3월 1일자) 6면 「유적지순례」편 문탄공(文坦公) 자녀와 내외손 중 봉군을 받은 이, 11인을 14인으로 바로잡습니다.